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2025년 10월 20일(월) 제 3189호

완주 또 혁신도시? 이원택 공약 형평 붕괴 논란

이원택 '완주제2혁신도시' 카드 조국당 '지역균형발전 배신' 직격 "정책취지정면충돌선거용구상 지역불균형·상대적박탈감심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논 평을 통해 "지난 13일, 이원택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 전북특별자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완주 삼 봉지구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 고 밝혔는데 이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 가 이전을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정치 적 구상과 연계해 도지사 당선을 위한 핵심 공약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나 이 구상은 혁신도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201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 하고, 낙후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 을 육성해 국가적 균형 발전을 실현하 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혁신도시는 단 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시정과 전국적 기회 균등을 담 보하는 국가적 약속이었다"고 주장했 다.

특히 "완주군은 이미 이서면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완주 혁신도시' 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집중 지원받아 왔고 행정구역상 완주일 뿐, 실질적으 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의 생활·경 제권 확장을 의미하는 입지였다"고 전 제한 뒤 "또 다시 같은 완주권에 '제2혁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균형 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중 적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 게 하고, 혁신도시가 지향해온 가치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도민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이다" 며 "전국 다른 혁신도시 조성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전북의 구상은 예외적이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음성 군, 강원은 원주, 경북은 김천, 전남은 했다.

나주에 조성되었으며, 이들 모두 도청 소재지와 물리적·경제적으로 일정한 거 리를 둔 입지 선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 축을 구축해 왔다는 것.

지역 내 중앙집중까지 피하려는 국책의 방향성과 의지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 고 전북은 첫 혁신도시부터 사실상 도청 소재지와 붙어 있는 곳에 조성한 데 이

전국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 이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가 내세운 완주 중심 조국당은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의 제2 혁신도시 공약은 특정 지역 쏠림 을 자초하는 편향된 개발 구상이자, 전 주·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현안 을 선거용 도구로 소비하려는 정치적 의 도가 엿보인다"며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 또 다시 완주군을 지목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발전 기회 상실을 심화

시키는 결정이다"고 지역별 불균형을 우 려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이래 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을 주도해온 집권 여당인데 그런 민주당 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자당이 수립한 국 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공약을 내건다 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적 일관성과 정 당성의 붕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장정철 기자



'농번기 땀의 주역'에 도-전북농협, 감사 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 완주 삼례문화 예술촌 등 명소를 둘러보는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대통령 지지 54%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 35% '최고'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긍정 1%p 하락, 부정 1%p 상승 2030세대 오차범위밖 야당 지지 내년 지방선거 여야 박빙 예상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 인 54%, 부정평가는 최고치인 35%로 나왔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 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 과 추석연휴 전인 3주 전의 조사때보 다 1%포인트 낮아진 54%, 부정평가는 35%로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 층(86%),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 층(78%)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 진다. 중도층은 53%가 긍정적, 무당층 에서는 긍·부정 각각 37%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4%·64%로 가장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 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 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순이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다.

추석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1%포인트씩 높아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의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공행 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 시각은 달랐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 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 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오 차범위 내에서 비등하게 나타났다.

진보층의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 의 62%는 야당 승리를 기대한 반면, 중 도층에서는 여 38%, 야 36%로 비등했 다.

24%는 의견을 유보했으며, 중도층의 유보가 25%로 가장 높았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여 39%, 야 38%로 팽팽했고, 경기도는 40% 대 40%로 아예 동률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경우 야당 승리를 바라는 쪽이 오차범위밖에서 많았다. 18~29세는 여26%, 야 40%였 으며, 30대는 여 31%, 야 3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 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전북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사와 전통체험의 날'

외국인계절근로자 40여명 초청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 한지·한옥마을서 전통문화 체험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초청해 '전주 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

이번 행사는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 에 힘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 하고,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도와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완주 우석대학교 W-SKY23에서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

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이창완 전북 농협 부본부장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태극선 부채 세트를 선 물로 받아 큰 환호와 감동의 박수를 보

이어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촌 △전주한지박물관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 전 통문화의 멋과 한류의 감성을 체험했 다. 특히 주요명소마다 외국인 계절근 로자들의 전북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해설사 및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문

화 체험의 질을 한층 높였다. 이와 관련,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외 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의 헌신이 전

북 농업의 성장과 안정에 큰 힘이 되었 다"며, "오늘의 경험이 고국에 돌아가 서도 전북의 따뜻한 정과 매력으로 기 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인력 이 아닌 전북 농업의 동반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근로 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장정철 기자





소]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38-5)

[참석대상]

정읍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식전공연, 기념식,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폐회식 등

[식전공연]

정읍시립국악단, 국악인 신동재, 태권도공연단 싸울아비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전북도, 불법전용농지 시·군 합동 교차단속 착수

오늘부터 3주간 집중 현장단속 농업시설 상업용 전용 차단 봐주기식 점검 원천 봉쇄 불법 농지 원상복구·고발 병행

전북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 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 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 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 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 도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 간 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 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북도는 일선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 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간 교차 조사를 통해 동일 지역 내 이해관계에 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 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 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유해,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장은 이에 대해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으로 불법 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 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 국장은 이어 "최근 허가 없이 농지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 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 용도 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 큼, 불법 전용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차 조사를 실시하고 또 조사 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사례를 공유해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오늘부터 8일간 임시회 개회

조례·동의안 119건 심사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포함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일 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 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을 해당 상임위 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7일 제2 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고 폐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지 회할 예정이다.

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 진행된다.

또'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 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 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 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 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 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

>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 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역의 주요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 후 지 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 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 는 전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력을 경기 수원권

으로 다시 회귀시

키려는 행태는 이 재명 정부의 공공

기관 이전 및 균형

성장 기조에 역행

하는 일이라고 강

전북자치도, 직업계고 대상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 신설

원광대 중심 산학협력 본격화 도내 첫 농생명·바이오 학과 추진 취업·학위 병행 전북형 모델 시동

에서 도교육청, 원광대학교, 전북상공회 의소협의회, ㈜대두식품, 한국식품클러 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학습을 연계한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 추진되는 지역혁신 전주기 인재양성 모델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위 취득과 역량 개발을 병행 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형 계약학과'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도 성

교육·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 연계 농 생명·바이오 분야 계약학과 운영 ▲취 업연계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전북도는 지난 17일 원광대 대학본부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지속적인 협 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광대는 2026년도 스터진흥원 입주기업 협의회와 함께 직 개설을 목표로 도내 최초의 '선취업·후 학습형 농생명·바이오 계약학과'를 개 설하고, 푸드태크·바이오 융복합 전공 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번 협약은 전북 RISE사업의 일환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 계고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사업을 통한 과정 개발과 학사 운영을 맡는다.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 하며, 교육청은 직업계고 연계 프로그램



전북도는 지난 17일 원광대 대학본부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학습을 연계한 '선취 업 후학습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련한다. 산업체는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을 담당, 대학은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계고 학생들이 단기 취업이 아닌 지역 다. 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을 총괄하고 채용, 정주 연계 체계를 마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하는 일 학습 병행 모 델이 전북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정착

/장정철 기자

윤준병, 농진청 수도권 잔류부서 전북 이전 추진

지난8월 수원 이전 시도 저지 '앞장' 수도권 잔류부서 전북 이전 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 부서 수도권 이전 시도를 저지한 데 이 어,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농촌진흥 청 부서 중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추진계획을 이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수도 권 이전 시도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며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잔 류한 농진청 부서를 모두 전북혁신도 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농진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다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



윤준병 의원

력하게 규탄했다. 농진청은 윤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 도권 잔류 부서의 전주 이전을 검토 중 이다. 현재 수원에 남아 있는 부서는 농 업유전자원센터(일부), 중북부작물연 구센터, 품질관리평가과 등 3곳이며, 이 중 품질관리평가과는 식품 관련 기 능 통합과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

윤 의원은 "남은 부서까지 전북으로 완전 이전해 농진청이 시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 전북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다. 이번 통계는 사

법처리된 사례만

포함돼 실제 사고

는 더 많을 것으로

수사 중인 금천

전북 푸드테크 혁신 AI로 연다…'K-FOOD NEXT 포럼' 성황

AI 기반 커스텀푸드 전략 모색 전북 케어푸드 산업벨트 시동

전북도가 지난 17일 전북바이오 K-FOOD NEXT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 이 참석해 산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 략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커스텀푸드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연구기관, 정 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푸드테크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대응 방향, 산업 확 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 전략 등을 논의하며 전북형 커스텀 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 를 형성했다.

행사에서는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 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업인 메디쏠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 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 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이번 포럼은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 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푸드테크 관련 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 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

전북도는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 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



도는 지난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 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총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 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리딩 기업 3개 육성, 관련 기업 40개사 확대, 2,300명 신규 고용 창출로 전북을 커스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다 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산업 미래를 열어갈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 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술 연계 등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밀폐공간 질식 사고, 기본 안전 위반이 태반"

안 의원 "사고 대부분 안전불감증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해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장은 17일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 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 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 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이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고, 10건(71.4%)은 보 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9건(64.2%) 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



구·계양구 맨홀 사 망사고를 포함하 면 최근 5년간 질식사망사고는 38건,

추정된다.

이 중 맨홀 내 사고가 9건(23.6%)이다. 사고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 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원인으로 '특별안전보건 교육'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올바른**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세요!

차 타면 꼭 지켜아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안전밸트 필수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꼭 착용 해 주세요!

JBT) 전북타임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전주시, '2025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18일 주정소서 진발의식 가져 전통문화마을 유튜브 생중계 노송광장풍남문경기전구간

'2025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가 전주에서 재현됐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태조어진 봉안의 례 재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을 알리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밝혔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시청 앞 노송광 사가 선두에 서서 이끌고, 전사대와 신연

장에서 충경로사거리와 풍남문사거리를 지나 경기전 구간까지 진행됐다.

특히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조선왕조 본향이자 태조어진 진본이 모셔진 전주 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이다.

이날 재현행사는 주정소(왕이 행차 중 에 멈춰 쉬는 곳)로 정한 전주시청 앞에 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출발

봉안행렬은 어진을 호위하는 전라감

(神輦), 사관, 도제조, 중사 등이 그 뒤를 뒤따랐다.

이어 행렬은 경기전 정문을 통과해 경 기전 정전에 봉안하고 고유제를 마지막 으로 진행했다.

이번 태조어진 봉안의례에는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예술 동호인과 가 족 그리고 시민 행렬단 200여명이 함께

행렬에서 △올림픽 유치 기원 염원을 담은 지역 청소년 100인 태권도 단체 품

새 퍼포먼스 △50여명의 효림초등학교 기접놀이 공연이 이어지며 행렬의 감동 을 더했다.

'2025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사)전통문화마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 뿌 리이자 본고장 전주에서 태조어진 봉안 의례가 전주 대표 역사문화 정례행사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배움으로 이어진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知-속전주, 함게잇知' 주제 151개 기관시민 2만명 참여

습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축제를 열 었다.

평생학습한마당'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 원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知(지)-속전주, 함께잇知 (지)'라는 주제 아래, 배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세대와 세대를 잇 전주시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학 는 평생학습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낸 것 정책과 연계한 '마음 온 심쉼(心心)카페' 이 특징이다.

올해 한마당에는 전주지역 151개 평생 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19회 전주 학습 기관·단체와 시민 2만여명이 참여 했으며 △평생학습 홍보체험부스 △학 습 동아리 공연 △쉼과 사유를 위한 정신

특히 축제에서 전주시 정신건강 특화 가 새롭게 마련돼 치유와 향유, 여유, 자 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시는 이번 행사를 토대로 평생학습도

건강 특화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시 지정 21년차에 접어든 전주의 학습문 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향후 시민교육·인 문정책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한마당이 세 대를 잇고 앎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돼 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 모든 시민이 학습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주에서 열려!

오는 10월 24일~25일 '사회연대경제로 세상을 새롭게' 판매체험관·정책홍보관 등 구성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 청 앞 노송광장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거 참여 하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 회 in JEONJU'를 개최한다.

이번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 회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 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 고, 사회적경제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경 제 연계 행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 규모 사회적경제 축제이다.



'사회연대경제로 세상을 새롭게'라는 표어(슬로건)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 △폐막식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판매체험관' △사회적경 제 정책과 역사, 자치단체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홍보관' △정책포럼 △시민 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여기에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에너지전환과 통합돌 봄, 지역순환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정책포럼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창업 박람 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 가능성 을 발표하는 'IR 전국 발표대회' △사회 적경제의 가치인 상생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상생오락실' △사회적경제 관련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사회적경 제 이해도를 높이는 '협동골든벨' △스탬 프투어 △쿠폰지급 프로모션 등 사회적 경제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가 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 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가 다양한 지역·계층의 참여를 통해 지 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 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가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역별 특성 고려한 2025년 재난대비 현장훈련' 개최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복합재난 상황시 대응능력 강화

전주시는 지난 17일 14시 휴비스 전주 공장 일원에서 '지역별 특성 고려한 2025 년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장 내 화재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황산(H2SO)이 유 출된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실제 재난 발 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 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훈련에는 전주시, 덕진소방서, 덕 진경찰서, 제35보병사단, 전북대병원 D-MAT,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 사,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기관 200여명 이 참여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14시 휴비스 전주공장 일원에서 '지역별 특성 고려한 2025년 재난대 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구조·진압, 응급의료 지원, 수습·복구까 검했다. 초기 신고 및 상황 전파부터 현장 진입, 지전 과정의 대응체계와 협조 체계를 점

특히 이날 훈련은 공장 자위소방대의

초기 방재 대응과 유관기관의 통합 대응 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과 주민 대피 안내, 응급의료소 운영 등 실전형 절차도 함께 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 초기 자위소 방대의 신고 및 방제조치 적정성 △유관 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재난안 전대책본부 가동 및 지휘체계 운영 △주 민 대피소 운영 및 교통 통제 △언론 브 리핑 및 정보 전달 등 현장 대응의 실효 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 항을 향후 재난관리계획과 정기훈련에 반영하고,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 업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과 맞춤형 훈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신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협약

서민금융권최초'전환보증'도입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 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이하 전환보 증 협약)을 체결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 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 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이다.

또 전환보증 이용 시 기존 대출 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줄수있다.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 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

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 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 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 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 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 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 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 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 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AI 역량 강화! 대전환 시대 대비한다

AI전문가특강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 만금청)은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 으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 전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인공지능 전환 (AX,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직 원들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지용구 대표가 진행한 강연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 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중심 의 업무 처리 방식 전환 △인공지능 (AI) 시대의 조직 전략과 성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용구 대표는 "인공지능(AI)는 단 순한 도구가 아닌 능동적으로 보조하 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 다"며 "개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부서·조직 차원에서 활용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부 서별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프로세스 혁신 을 추진하여 스마트 행정의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 지능(AI) 지원 범위를 점차 넓혀 업무 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 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0 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 시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 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 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 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 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 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 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 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 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 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 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 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 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가을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화재 사고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가을철 캠핑 활동이 늘어 나면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일산 화탄소 중독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출동은 총 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지 난해에만 4건이 집중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군산에서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남녀가 사고를 당 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 송됐는데, 현장에서는 번개탄 사용 흔적이 발견됐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특성 을 지녀 인지하기 어렵고, 소량으로 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같은 초기 증 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를 실시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야 한다.

캠핑 시에는 취침 중 난로 사용을 피하고 침낭과 핫팩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사 용할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가 공기보 다 상대적으로 가벼워 상부에 머무르 기 쉬운 특성을 고려해 텐트 상단 또 는 중앙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이와 함께 캠핑장에서는 화재 사고 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2015~2024년) 전북지역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건으로, 이 가운 데 절반이 10월에 집중됐다.

캠핑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텐트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하며, 조리·난방 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병원,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도내 장애인 체육선수 안정적 일자리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한국 장애인고용공단(지사장 박중석)-전북특 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체육활동 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활동과 직업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공의 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 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 롯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중석 지사 장,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세 기관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 적 고용 기반 조성 △체계적 복무관리 및 직무 지원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장애 이번 협약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 인 고용문화 정착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장애인 체육 선수가 경기활동과 직업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1장소1전북대학교병원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 애인 의무고용 달성에 적극 나서며, 고용

는 포용적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 획이다.

/정소민 기자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전북과학축전' 성황

과학기술인대상시상 110여개부스운영등 지역과학기술위상제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 크가 주관한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다. 대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부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윤영임 교육국장 등 과학기술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5회 전북 과학기술인대상 시상식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 등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

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 △전북 대학교 윤영상 교수 △한국식품연구 원 정창화 본부장 등 3명이 선정돼 메 달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올해 과학축전은 장소를 전주대 대 운동장으로 이전해 110여개 부스를 운영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 람객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

시원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진행되 는 이번 축전은 기존 실내 행사장의 제약을 벗어나 관람객들에게 더욱 자 유롭고 개방적인 과학 체험 기회를 제 공한다.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와 '사이 언스 마이크' 등의 프로그램은 LEGO 기반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물리·코딩 원리를 배우고, 학생들이 자 신의 과학 아이디어 발표함으로써 과 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기 회를 제공한다.

전북과학축전은 지난 19일까지 3일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간 계속됐으며, 사이언스 일루전, 버블 랩쇼, 솜사탕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과 학문화 공연과 함께 에그드랍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개

막 첫날부터 보여준 뜨거운 참여 열기 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추가 모집

시설원예·축산 각 1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 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수요가 높 아짐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1 월 7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 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예 순천대, 축산: 연암 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 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 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 산 분야 각 1개소를 선정해 총 2개 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전북중기청, 지역 AI기반 혁신기업 현장 소통

㈜텔로스방문공공조달 시장진입지원정책등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텔 로스(대표 황큰별)를 방문해 공공조 달시장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이 지역 혁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달 및 중기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 '합동 정책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이날 기업 현황 청취와 애로사항 논 다. 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텔로스는 2020년 설립된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으로 AI 기반 디지털트 윈, XR/MR 교육 솔루션, 데이터 플랫 폼 등 첨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 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공공 조달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 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성장 기반을

이어 전세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디지 털 혁신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



전북지방조달청-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텔로스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첫 지정기부사업 모금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로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위탁 있는 첫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20 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선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고향사랑 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부금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기여하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참여형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계 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첫 지정기부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 업'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이다.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생필품과 학용품 등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천만 원 규 모의 사업비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

호남·제주지역 44,000 가구 대상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2025년 지난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남·제주지역 44,000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하게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사를 실시한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

또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생활지원센터 이동차량을 교체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를 높이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투입 된다. 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각 장애인의 병원 방문, 장보기, 재활훈련 등 일상 이동을 안전하게 돕고 사회참 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 통국장은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기부 와 복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 발점"이라며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참 여가 위탁아동과 시각장애인에게 희밍 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

표는 2026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목

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

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

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

취업현황은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성료

기업인·소상공인 위한 사랑 문화 나눔 확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 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 난 16일 부산 벡스코(BEXCO) 오디토리 움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쁜 일상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인과 소 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을 순회 하며,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6회로 예정된 권역 별 콘서트 중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천여명이 참석했다.

2025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 눔콘서트' 호남권 일정은 11월 2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

이날 콘서트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 트라와 윤승업 지휘자, 진성원 테너, 길 병민 바리톤, 박소영 소프라노, 고아라 재즈보컬리스트, 하모나이즈 쇼콰이어 그룹 등 국내 최정상 출연진들이 대중 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추 억의 팝송 등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작된 영상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를 제공했다.

특히 곡의 분위기와 내용에 맞게 제

앵콜곡으로 부산지역 관람객들을 위 해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부산 갈매기' 를 선곡해 관람객들도 한마음으로 열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콘 서트를 통해 힘을 얻어간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지친 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사

가족들이 많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

/정혜민 기자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정혜민 기자

전주시립극단, 29일 정기공연 '감찰관' 막 올려

다"고 말했다.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덕진예술회관서 29~31일까지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9일부터 31일

까지 3일간 매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 술회관에서 제133회 정기공연인 '감찰 관'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니콜라이 고골의 대표 희극 '감찰관'을 전주시립극단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각색해 선보이는 무대로, 사회 의 부조리와 인간의 허세를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이 작품을 통해 웃음 속에 날 카로운 통찰을 담아 현대 사회의 자화 상을 비춘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부패한 관료들로 가 득한 지방 소도시에 감찰관이 시찰을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장과 관리들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허둥대는 것으 로 시작된다.

그들은 때마침 나타난 한 여행객 '흘 레스타코프'를 감찰관으로 착각하고 아 첨과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죄를 감추 말했다. 려 하고, 흘레스타코프는 돈을 챙겨 달

아나 버린다. 뒤늦게 진짜 감찰관이 도 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상황은 절정 에 이른다.

전주시립극단은 이번 '감찰관' 공연 을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단순한 풍 자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허세, 체면 과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람' 의 모습을 그린다. 특히 지난 2022년 연 극 '반쪼가리 자작'으로 이데일리 문화 대상 등 여러 연극상을 수상한 박성찬 (창작조직 성찬파 대표) 객원연출이 참 여해, 원작의 블랙코미디적 요소를 현 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 풍자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극단이 고전 희 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작 품으로, 유쾌한 웃음 속에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서 "관객들이 즐 겁게 웃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정혜민 기자

'제220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최

내달11일최재천교수초청 '다양성과공존'주제강연

사회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주시민 들과 만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명 예교수를 초청해 '제220회 열린시민강 좌'를 개최한다.

이날 최재천 교수는 '다양성과 공존,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를

주제로 인간과 자연에 관한 통찰 및 더 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 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강연 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교 감을 나눌 수 있도록 최재천 교수와 시 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 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열린시민강좌에서는 사전 공연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피 아노 3중주가 더해져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전주시민이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 (e.jeonju.go.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장은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인문, 생 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저 명 강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 고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꾸준 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 평 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9월 전북도 고용률 65.2% 취업자 100만8천명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률 은 65.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 승, 취업자는 100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 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 승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실업 률은 1.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만7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천명 증가로 확인됐다.

/정혜민 기자

5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전북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산재 관리 '허점'

28건 기술지도 미이행 백숭아 의원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해야"

전북을 포함한 전국 학교 공사현장에 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24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1명이 사망했 으며,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중 일 부에서 산재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돼 안전관리 부실이 지



백승아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청 발주 공사 현장 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4 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년 39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 도 이미 253건이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사고였다.

전북교육청은 1,900건의 공사 중 28 건에서 착공 전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 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공 말했다. 사 계획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절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안전정책이 학 다. 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하청

24건으로 이 중 19건이 추락으로 인한 노동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공사가 외주화되면서 현장 위험 파악이 어렵다"며 "교육청의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이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IB 미래교육 포럼 개최

IB 철학 이해·공감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 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IB 미래교육 포럼(주제 아이의 시선,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IB 교육)'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IB 철학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의 수업・ 평가 혁신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IB 교육 전문가, 학부모, IB DP(고등학교 과 정) 졸업생 등이 참여해 각자의 시 선에서 바라본 IB의 의미와 사례를 나눴다.

특히 IB DP 과정의 수업과 평가 사례, IB 활동을 통한 대학 진학 사 례 등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의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IB의 수업·평가 사례, 대학 진학과 도내 안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포 럼은 교실의 수업·평가를 넘어 학부 모와 교원이 함께 전북의 미래교육 을 설계하는 시간어었다"며 "아이의 시선에서 학습하고, 부모의 마음으 로 응원하는 전북 IB 프로그램을 꾸 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삼우경로당' 새단장…지역 공간 복지 개선 앞장

학생·교수·지자체 협력 맞춤형 생활공간 재탄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주거환경학 다. 과(학과장 장미선)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사회 공간복지 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성과로 '삼우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 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지역 산업 체 등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입주식에는 다. 어르신, 전주시청 관계자, 전북대 교수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거환경학과는 2023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공간과 노후 공공시설 개 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인주택 2곳과 경로당 1곳을 다.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삼우경로당은 그 첫 완료 사례 로, 전주시청과 협력해 대상지를 선정하 고 어르신 맞춤형 공간 진단과 설계, 시 공까지 전 과정을 학과가 직접 수행했

특히 노후화와 안전 미비로 불편했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형 공간으 로 재탄생했다.

삼우경로당 소병서 회장은 "물이 새 고 곰팡이가 피었던 벽이 새로 바뀌고, 손잡이와 문도 편리하게 개선돼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

생들도 대거 참여해 전공 지식을 현장 에 적용하고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함께하며 전공의 사회적 가치를 체험했



이번 사업에는 교수진뿐 아니라 학부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는 취약 노인가구 및 경로당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첫 성과로 '삼우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입주식을 가졌다.

특히 생활과학계열 1학년 신입생들도 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 경험 치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대학-을 쌓았다.

장미선 학과장은 "대학의 인적·학문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자발적으로 참 적 역량이 지역사회와 만날 때 더 큰 가

지자체-지역기관이 협력하는 공간복지

/최성민 기자



강호항공고, 군 특성화 교육 확대

병과별 실무 중심 교육 체계 구축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가 군 특성화 교육을 확대한다.

강호항공고는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로 공군 항공정비 군특 성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 년부터는 해군 항공정비 군특성화반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군 기술인력 양성 계획 에 따른 것으로, 군의 항공정비 분야 인력 며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병행할 수 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호항공고는 공군과 해군 군 특성화반 을 병행 운영해 학생들의 병과 선택 폭을 넓히고, 병과별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시 행할 계획이다.

체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 부사관 임관 후 6개월에서 48개월간 복무 하고 장기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군 정비반은 항공정비와 전자장비 운

용 교육을 포함하며, 해상 항공기 정비 분 야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두 반 모두 군 위탁 실습, 군 전문가 특 강, 항공기 실물 정비 실습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강호항공고는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항공전자과(공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2 학년 2학기에 공군 및 해군 군 특성화반 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들은 군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생은 군 복무 이후 항공산업 분야

쥐업과 대학 진학이 모누 가능하다. 염택선 교장은 "공군 군 특성화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 군 특성화반 을 추가해 군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확 공군 항공정비반은 항공기 엔진 및 기 대하게 됐다"며 "군 협력형 교육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학업을 연계한 실무 경력 쌓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

중등 직업교육 정책 이해 등 교육과정·정책이해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 까지 라한호텔에서 '2025년 직업계고 운영한다.

연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취업 연 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실 습 운영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며 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등 직업교육 정책 이

해 △현장실습 운영 전략 △학생 취업 지도 전략 등으로, 교원들의 현장실습 운영 능력과 취업지도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직업계고 교원 취업역량강화 및 현장실습 연수'를 현장에서의 취업지도 및 현장실습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앞으로 도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실무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 지원체계 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최성민 기자



아름다운 가을 산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쓰레기는 확실히 처리하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

자연그대로 보전하기!

산행중 아름다운 자연에 홀려



꽃을 꺾거나, 에쁜돌 챙기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존중 하기

등산 중 마주친 야생 동물은



위협하거나, 해치지 말아 주세요.

익산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8명 선발·22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감시원'을 배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 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민간 감시원 8명을 선발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익 산시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민간 감시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구 비서류를 준비해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 하면 된다.

선발된 민간 감시원은 4인 1조 편성돼 오 는 11~12월 활동하며 △대기·악취 배출업 소 환경오염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 도 시기에 주요 배출원을 조기에 찾아내고 불법 배출 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청정한 대 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익산=최준호 기자

'식객 허영만과 함께하는 익산 미식여행'성료

미식도시 익산시가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의 미식과 문화를 전국에 알렸다.

익산시는 지난 16~17일 '식객 허영만과 떠나는 익산 미식 여행'을 성황리에 개최했

이번 행사는 만화 '식객'과 방송 프로그램 '백반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허영만 작가와 함께 익산의 음식문화를 재조명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 트로 마련됐다.

행사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지역 맛집을 탐방하는 미식 여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뚜 부카페, 진미식당, 장흥식당, 백인숙 꽃게 장, 다솔향 등 5곳의 음식점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 트와 사인회가 열렸다.

시는 이번 미식여행을 계기로 익산의 맛 과 이야기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허 영만 작가의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미식 도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 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은 가장 친근하고 효과적인 지역 문화 자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익산의 맛을 즐기며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정읍시, 한·중·일 교류 무대서 25년 자매도시 우정 다져

정읍시가 25년간 이어온 자매도시와의 우정을 다지고,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교 류의 장에서 정읍의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 벌 도시 외교의 보폭을 넓혔다.

정읍시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서주시와 옌청시를 방문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서주시의 공식 초청으로 성 사됐으며,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 회 의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동행했다.

먼저 대표단은 지난 14일, 자매결연 25주 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쑤이닝현 아동화 센터에서 열린 이 전시에 는 정읍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사진 40 여 점이 걸려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 다. 이어 선줜평 서주시장, 왕궈창 비서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문화·교육·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 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16일 본회의 발표자로 나 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정읍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 시장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 영습지와 솔티숲, 구절초 지방정원,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사람 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도시로서의 정읍의 비전을 공유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성과 인정

사업비최대 5억확보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구축등26개사업운영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우수 성을 인정받으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을 높였다.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 과를 인정받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 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7 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 로 이뤄졌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 학이 협력해 추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 며, 2026년까지 총 229억 원 규모의 교 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 혁신·발전을 위해 시는 익 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협력해 교 육 거버넌스 기구인 '교육공동체지원센 터'를 구축하는 등 26개의 교육혁신 사 역 특성에 맞춘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 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점 사업인 생명산업 분 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 을 끈다. 원광대학교 의·치·한·약학과 의 지역인재전형을 80%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생명산업 고등산학관 커플링'을 운영했다.

또 유학생 보건의료 인력양성, 대학 지원을 활용한 방과후학습관 '더봄' 운 영,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 다.

시는 이번 평가로 확보하게 될 추가 사업비를 기존 사업 심화와 새로운 교 육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 육환경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양질 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명품교육도 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전북 1위 '우뚝'

평균체류일수3.9일 4.9일 숙박 전국 평균 상회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생 활인구'를 늘리는 체류형 도시로의 전 환에 성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 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정읍시가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2024년 4분기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 하며 그성과를 입증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통 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에 머 무는 인구까지 더한 새로운 인구 개념 이다. 실제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핵

인구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세부 지표들은 정 읍이 가진 매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 여준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 용액은 15만 1000원으로, 도내 인구감 소지역 평균(12만 2000 원)을 훌쩍 뛰 어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증명했다.

평균 체류일수는 3.9일(전국 평균 3.5 일), 숙박일수는 4.9일(전국 평균 3.9일) 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정읍이 당일치기 여행지를 넘어 장기간 머물 며 즐길 거리가 풍부한 체류형 관광도 시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48.6%에 달 심 지표로, 성무의 재성 지원 기순 능으 - 하는 높은 재방문율이다. 선국 평균 -로 활용된다. 정읍시는 올 1분기 94만 (39.3%)보다 9%p 이상 높은 수치로, 방

2495명(월 평균 31만 4165명)의 생활 문객 10명 중 거의 5명이 정읍을 다시 찾는 셈이다. 이는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도시'라는 정읍시의 목표가 성공 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 장 확실한 증거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분석된 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했다.

이학수 시장은 "다양한 체류형 관광 자원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정 읍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4일까지 화학안전주간 행사 개최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도모

을 위해 오늘부터 24일까지 '제3회 군 피캠텍(주) 등 다수의 기관 및 기업도 산시 화학안전주간'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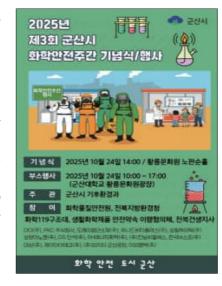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가운데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 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환 될 예정이다. 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생활 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전북 질의 위험성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OCI(주), P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켐(주), ㈜디에스단석, ㈜성일 하이텍, 대상(주) 전분당, ㈜SH에너지 화학, ㈜유니드비티플러스, ㈜천보비엘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실현 에스, 제이아이테크(주), ㈜피지티, 이 함께 한다.

주 행사인 기념식은 24일 오후 2시,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 노판순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 화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안전문 시까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25개의 체험과 전시 부스가 운영

김현숙 군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이 화학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화학안전 사업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시



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태인면 일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108만 3000㎡ 부지 국비포함총2147억규모

부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 터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 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비 66억원을 포함한 총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 정면적은 108만 3000㎡·산업시설 면적 은 65만 1000㎡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업입지정책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 새롭게 조성될 태인산단은 태인IC와 혔다. 국도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

그동안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고, 인근 산업단지·농공단지와의 연계 완료하고 태인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 가 쉬워 기업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향후 시는 산 업단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투자 정읍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시업비 2147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 심사를 거쳐 개발계획 용역 등을 착수 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 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정읍시는 태인면 일원 108만 3000㎡ 국토교통부의 수요입증 조정회의와 산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 지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일자리·인재 '만남의 장' 열린다

23일하반기취업박람회개최

구직자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꼭 맞는 인재를 찾아주는 '만남의 장'이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읍 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 정읍시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 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성공적인 연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14 일,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사 전 간담회를 열고 행사 운영 방향 과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심도 있 게 논의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행사 당일 실내체육관에는 기업

별 1:1 현장 면접이 진행되는 '채용 관'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부스'가

특히 구직자들의 자신감과 참여 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눈길을 끈다. 이력서용 사 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고, 전문 컨 설턴트가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진단', 흥미를 더하는 '취업 타로점'과 'AI체험관' 등이 함 께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구인・구직 행사 를 넘어, 지역 기업과 구직자가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고용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

21일~내년 2월 15일까지

익산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 산 등재 10주년'과 '이리시·익산군 통 합 30주년'을 기념해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21일 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세계 속의 백제, 백제 속의 익산'을 주제로 특별 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부 '세계유산, 백제를 품다'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와 백제역사유 적지구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소개한 다. 2부 '익산, 백제의 미래를 설계하 다'에서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백제 무왕이 꿈꿨던 새로운 왕도의 비전과 불교문화의 융성을 조 명한다.

3부 '10년의 발자취, 세계와 만나다'

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뤄진 발 굴·보존·학술 연구, 시민 참여 활동 등 을 통해 '살아있는 세계유산 도시 익 산'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준다.

4부 '백제, 미래를 여는 유산'에서는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유산의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지 난 5월 열린 '제1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작도 함께 전시돼 미래 세대가 바라본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상상력을 시민과 공유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10 주년을 맞아 백제문화의 가치를 시민 과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에게 살아 있는 유산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익산의 세계유산을 직접 느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군산시 보건소가 17일 군산월명종 산시 관계 부서·군산경찰서·전북소방 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탄저균 생물테 러 사건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등 관계 기관

초동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생물테러 대응 체계 점검 △상황 발 생 시 피해 최소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공고를 위해 마련됐다.

장 대응 훈련, 자원 동원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했다.

터·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군

본부 119특수대응단·국립군산검역소· 및 관계자 80여 명이 동석해 실제 상황 을 가정한 대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며 현장감을 높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 을 계기로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 특히 기능 훈련 및 초동대응팀의 현 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공조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 었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 또한 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 전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서천 어르신들, 생활체육 친선교류

군산시와 서천군 어르신들이 화합과 해 건강을 지키고 친선을 다지며, 앞으 산수송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 시작을 알렸다.

군지회 김윤태 회장이 힘찬 대회 선언 을 통해 양 도시 노인 회원들의 화합 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래범 들을 격려했다. 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을 통

우정을 다지는 '서천·군산 어르신 생 로도 군산과 서천이 함께 어르신 복지 활체육 친선교류대회'가 지난 17일 군 와 여가문화 증진에 힘써 나가자"라며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 이날 개회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천 해 "이번 대회가 군산과 서천 어르신 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가치를 되 새기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26일까지 도로명주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도로명주소에 대

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주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늘부터 26

일까지 도로명주소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

판,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이 있

으며 그중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

호를 이용해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주 등

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 그램, 카카오채널 등 김제시 SNS에 게시

된 내용을 참고해 QR인증 후 서식 작성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SNS 초성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주소정보시

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다고 밝혔다.

및 제출하면 된다.

다.

SNS 초성퀴즈 이벤트 열어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24일 개막

와인·재즈등즐길거리 풍성…24~26일까지 변산해수욕장서 개최

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안 변산해수욕 다. 장에서 열린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 노을'을 주제 로, 레드와인페스타, 제3회 부안붉은노 을동요제, 붉은노을 재즈페스티벌, 스 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 정이다.

페스타'는 부안 오디와인, 세계와인을 아름다운 변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감성 프로그램으로 큰 인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며, 24일 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지 준비돼 있어 자가용을 가져온 방 마를 진행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 문객들도 부담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 정이다. 다.

'서남해에 거대한 바람'

해상풍력 시범사업 닻 올려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남해 해상

한국해상풍력㈜(한해풍)이 산업통

상자원부 주관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전

이에 따라 10여 년간 준비해온 서

한해풍은 2011년 정부의 서남해 해

상풍력 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풍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시동을 걸게 됐다.

붉은노을동요제에는 189팀이 접수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통과한 25 팀이 최종 무대에 오른다.

25일, 26일 양일간 예선과 결선이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참가 어린이들 의 실력이 상당해 붉은노을축제의 또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오는 24일 다른 관람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

> 변산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조성되는 대형 모래조각도 새로운 볼거리다.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인 '부안몬 프렌즈'를 주제로 가로 12미터, 높이 8 미터의 대형 모래조각이 붉은노을축 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 제만의 특별한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하늘을 수놓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레드와인 는 대형연과 야간에 펼쳐지는 LED연 의 향연인 '스카이 갤러리'는 어른들 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불꽃놀이 후에는 '여름날 우리', 25일 또한 논알콜 음료인 오디에이드까 불꽃놀이 후에는 '씽' 이라는 선셋 시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장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부안 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부안 위도서 본격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 해왔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한 데 이어 올해 9월 정부로부터 공

식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며 사업 추

단순한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넘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진될수록 어업 손실 보상과 지원사

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간 24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 서남권 400MW 시범사업의 우선 서남해 2.4GW 집적화단지 조성의 출

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조기에



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담은 2025 부 안붉은노을축제에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하시어 새로운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4일 개막식에서는 김필 과 케이시가, 25일에는 스텔라장이, 26 일 폐막식 무대에는 윤하가 축하공연 을 선보일 예정이며, 행사기간 3일간 불꽃놀이를 진행해 행사의 마지막을

또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RE100 국가산단 조성, 지방세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한해풍은 지역 축제 후원과 사회공

회사는 앞으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선박 및 업체 활용 ▲주

민 이익공유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지

한해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

배우건보건지에 고참군 전 지역

/부안=신상수 기자

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해상풍력

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약 3조 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민과

3천억 원, 공사 기간 78개월 규모다. 의 신뢰를 다져왔다.

업이 가속화되고, 주민 이익공유금만 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창의 7가지 세계보를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새올전자민원창구' 임시 운영

국민신문고 중단 대응

고창군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 국민신문고를 대체할 임시 민원창구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했 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중단된 상황에 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내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생활 불편, 도로·교통, 환

경 등 단순 민원과 일반 질의·건의 성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의 민원은 기존 국 민신문고와 달리 자동 이송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 유선 등의 방법 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시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해 시스템 복구 시까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 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 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청우평생학습관 도배실무반, 재능기부

부안 민원과-바르게살기운동부안協 청렴 캠페인

획이다.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 는 도배실무과정 수료생과 교육생들 이 17일 도배 강사와 함께 관내 취약 계층 1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상반기 과정을 수료 한 학습자 4명과 현재 교육 중인 학습 자 4명, 그리고 평생교육 도배강사가 은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의 결과를 참여해 의미있는 나눔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실습을 통해 익힌 도배 기술을 활용해 노후된 벽지를 새로 교체하며 이웃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생활공간을 선물했다.

지난 16일 부안군청 민원과 직원 및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회(회장

장대현) 회원 10여 명이 손을 맞잡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앞으로도 민원과와 바르게살기운

동 부안군협의회는 민·관 합동 청렴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

실시했다.

'도배실무과정'은 부안군 평생교육 팀이 추진하는 학습형 일자리 모델의 일환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학습체 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배실무과정 지역사회에 나누는 모범적인 평생학 습 실천사례"라며 "군민이 함께 배우 고 함께 성장하는 살맛나는 지역사회 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가족센터 '학력취득 지원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숙)가 운영

/고창=백종규 기자

장대현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

의회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 협의회와 직원들이 함께 청렴 캠페인 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해 일깨우 는 시간을 가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렴 문화 정착을 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온봉기 기자

프로그램' 검정고시 9명 합격

하는 학력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5 년 1·2차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초 졸 2명, 중졸 3명, 고졸 4명이 합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센터는 지난 16일 합격자들을 초청

해 간담회 및 합격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학업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도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 으로의 학습 계획과 진로 목표도 함께 공유

정혜숙 센터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든 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여 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고창군민의 학력 증진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고창군 '수요일엔 서해랑길' 대장정 마무리

6주간 총 2백명 이상 참여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수 요일엔 서해랑길' 프로그램이 지난 15 일 여섯 번째 회치를 끝으로 올해 대장 간이 됐다. 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둘레 길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 서해랑길을 매주 1코스씩 완주하는 형태로 기획・ 운영됐다. 회차별 30여 명, 총 200명 이 상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고창의 바다와 염전, 갯 벌, 마을길 등 서해안 특유의 자연경관 라고 밝혔다.

을 따라 걸으며 지역의 매력을 체험했 다. 특히 생물권 스토리텔러의 전문 해 설이 함께해 고창의 다양한 인문・자연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는 "6주간 진행된 '수요일엔 서해랑길' 은 고창의 대표 관광자원인 서해랑길 의 아름다움과 걷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참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도보 여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해리면 지사협, 어르신들과 함께하는행복한가을나들이

할체할 행복한 고창나들이

고창군 해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이재택, 홍정묵)가 지난 16일 관내 어르신들과 협의체 위원 등 20명이 함께하 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상하농원에서 농원을 산책하고 직접 소 세지를 만들기 체험도 하고, 카페에서 휴식 을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행 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 창상하농원과 해리면 자율방범대의 도움이 있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됐다.

이재택 위원장은 "이번 나들이로 어르신 들께 활력과 웃음을 배가 시키는 시간이 됐 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 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 다"고 말했다.

홍정묵 해리면장은 "언제나 지역 어르신 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 사드리며, 앞으로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 진행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올해 3분기 공약 이행률 86.87%

F개분하위산 고창 고인종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통해 군민 약속 지킬 것"

고창군이 지난 16일 군청 2층 회의실 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 고회에서는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 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17개 사 업은 완료됐고, 42개 사업은 이행 후 계 속추진으로 분류돼 총 59개 시업이 완료 정책적 지원 우대 등 지급 △고창군 주 됐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고창읍성 한옥·민속마을 조성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설치 △저청 년 농림축수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이 다.



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사업 △농 기계구입지원 확대 및 첨단농기계 확충

고창군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흥덕, 부 사업이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값 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성 공약사업 등 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차근차근 정

고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 인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체계적인 공약관 리와 점검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 는 군정을 펼쳐가겠다"며, "군민의 행복 Δ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Δ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드론배송 실증 시연회 성황리 개최

미래형 스마트 물류도시 식품사막화 해소 기대

산공원에서 '드론배송 실증 시연회'를 개최하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배송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다. 혔다.

리무인항공과 ㈜지에이항공이 공동으 로 주관했으며,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 현 김제시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성 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 ㈜지에이항공이 자체 개발 한 국산 자율비행 배송용 드론을 선보였

또한 ㈜온누리무인항공은 ㈜지에이 이번 시연회는 시가 주최하고 ㈜온누 항공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성산공원

에서 소산마을 경로당까지 왕복 7km 구 간을 비행하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치 킨을 배송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시는 드론배송 사업을 통해 교통이 불 편한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 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번 시연회 를 계기로 드론산업의 선도도시이자 첨 단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이 중견관리자 및 실무자 역량 강

화를 위한 6.7급 중견실무자 리더십 아카

이번 교육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소양 대승한지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변 화와 혁신을 주도할 리더십과 실무 역량 배

교육에는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중요

프로그램은 ΔChat GPT 활용 오피스 실

무과정 △직장 내 소통·갈등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

어 실무 중심의 학습과 더불어 조직 변화와

성과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

특히 유희태 완주군수와의 소통 시간에 서는 완주군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자유로

운 의견을 나누며 참석자들의 공감과 참여

참여 공무원들은 교육 전반에 대해 높은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리더십 아카데

미를 통해 서로 배우고 공감하며 한층 성장

한 만큼, 현장에서 완주군의 비전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

/완주=김명곤기자

를 이끌어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한 역할을 수행하는 6급과 7급 공무원 40명

완주군 중견 공무원, AI 등

실무 역량·리더십 강화

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양을 목표로 운영됐다.

화에 초점을 맞췄다.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참여했다.

완주 상삼리산성, '백제 만경강 거점' 확인

발굴조사 결과 통제 핵심 성곽 남성벽서 토석혼축 구조 밝혀져 백제 만경강 지배체제 연구 단서

완주군은 '완주 상삼리산성 유적 학 술 발굴조사' 결과,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 지배의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상삼리산성은 둘레 986.5m 규모의 백제 성곽으로, 1960년대 조사 이후 보 존 조치와 학술 연구가 미흡해 훼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의 전 액 국비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추정 남문지 및 남성벽을 중심으로 긴급 발 과 동시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구조로 하고, 향후 정비·보존 대책 마련의 기 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벽은 너비 약 10m, 최 이 확인됐다. 특히 성벽 안쪽 상층부에 기와를 점토 덩어리와 함께 깔아 축조 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흔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교육공동체·인재육성우수평가

선도지역 선정 추가 예상 5억 확보

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

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완주군은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 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상삼리산성 범위와 주요 시설. <사진=완주군>

지역 인재 육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

있다. 바깥쪽 석축은 토성벽을 지탱함 추정된다.

대 높이 3.75m에 달하며 흙과 돌을 혼 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점토층, 주거 합해 쌓은 토석혼축(土石混築) 구조임 지 및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 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밝히는 핵심 자 으며, 다량의 백제 기와와 토기류가 출 는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다량의 백제 토돼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

이번 조사는 훼손 위기에 놓였던 상 개할 예정이다.

순창군, 교육발전특구 '관리'→'선도지역' 승격

를 받으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난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이 공동 추 해 시범지역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 은 기존 예산 129억 7천만 원에 더해 5

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난 13 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K-발효 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일 정부 평가에서 '관리지역'에서 '선도 바이오 산업 및 농촌유학 1번지'라는 를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

주요 사업으로는 발효미생물 산업과

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 학 거점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 확대, AI 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 어학 교육,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지역'으로 승격되면서, 추가 사업비 5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 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 연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농촌유

순창군은 특히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삼리산성의 구조와 축성 시기를 규명 틀을 다졌다. 특히 상삼리산성이 상운 또한 성벽 안쪽 평탄지 시굴조사에서 리고분, 운교유적 등 주변의 마한~백제 유적들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 료로 평가된다.

> 한편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향후 영 상으로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 /완주=김명곤기자

용적인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순창군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노

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선

/순창=박지헌 기자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과 발효관광재단은 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열었다. <사진=순창군>

순창 '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행사 성료

순창장류축제 대표 프로그램 전통 장 담그기 퍼포먼스 등

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최했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열린 제 의 세계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 리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장을 찾아 장 담그기 시연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고말했다.

을 함께 즐기며, 전통문화의 소중

간이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네스코 20회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프로그 등재는 순창의 장 담그기 문화 램으로, 한국 전통 장 담그기 문화 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인류 공동 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라며,"앞으로도 순창의 발효 행사 당일 많은 군민과 관광객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 시켜'세계가 인정하고 찾는 발효 퍼포먼스, 전통 장류 명인의 참여, 도시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순창=박지헌 기자

함을 되새겼다. 특히, 장류 명인·기능인과 시민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이 함께한 '유네스코 등재 기념 장 17일 순창발효테마파크 앞 열린무 만들기' 퍼포먼스는 세대와 계층 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을 아우르는 참여형 행사로 큰 호 응을 얻으며, 공동체적 전통 문화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성황리에 개 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

'남원 자매도시' 아산시 청소년 드론제전 참여 상호 문화교류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 2일간 자 매도시 충남 아산시 청소년 및 관계자 20명 이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With로봇 행 사에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아산시 초청으로 남원시 청소년이 아산시를 방문했으며, 2007년 11월 결연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 연을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미래세대인 청소년 간 교류를 통 해 양 도시간 서로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아산시 청소년들은 17일 도착하여 드론 행사장에 방문하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관람하고, △항공우주천문대 △ 화인당 한복 체험 △ 피오리움 관람 △ 서 도역 △ 농촌체험 등 남원시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는 남원국제 드론 행사까지 참여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 회는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경험 을 하게 되어 일거양득의 문화교류가 되었 다"고 전했다.

여성가족과장(김미옥)은 "앞으로도 남원 시 축제 및 행사 일정에 맞춰 교류를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아동 안심승강장' 설치…통학 안전 강화

용봉초 학생들 건의로 조성 아동참여예산 사업 편성·추진

완주군이 지난 16일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안심 승강장'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군은 '아동 안심승강장'을 통해 아동안심승하차존을 조성해 아동의 통학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이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 민원을 를 아동의 정책 참여 사례로 반영해 성·추진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통해 아동 의견 수렴, 모니터링, 아동참여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아동권리실 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실행을 확대하 고 있다.

군은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유희태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 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이번 사업은 용봉초등학교 학생들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아 동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완주군은 이 며 "완주군은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성장해나갈 2025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 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드론제전 연계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6일~17일 남원종합 1,0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국제드론축제 with로봇 연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씨가 붓글씨 캘리 퍼포먼스로 멋진 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순창지사 개막을 알렸으며, 유명 직업인으로 초 대된 남도형씨는 성우로 성공하기까 흥미를 이끌어냈다.

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6 츠를 제공했다. 개분야 40여개 콘텐츠의 진로 직업체 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교통편의 제공 로상담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개인 에 대한 의견도 반영해 청소년 수송 에 맞는 진로를 찾는 상담이 이뤄졌 차량을 배차, 운행한 결과 전년대비 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NH농협 전북본부 인사팀 및 남원시지부에서 는 N돌핀 대학 봉사동아리가 참여해 첫날 행사에서는 켈리그래퍼 김소 은행원 직업에 대한 현장 1:1 멘토링

에서는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다.

용성고에서는 신설된 학과를 소개 지의 과정과 에피소드로 청소년들의 했으며, 제일고에서는 헤어, 피부, 메 이크업, 페이스페인팅, 네일 등 현장 이번 박람회는 사전 의견조사와 간 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컨텐

> 남원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전문 진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북도민 헌혈의 날' 맞아 군청사서 22일 캠페인 진행

완주군은 '10월 전북도민 헌혈의 날 기간' 을 맞아 오는 22일 완주군청에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 시한다.

'전북도민 헌혈의 날'은 도민들에게 헌혈 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 천하자는 취지로 2023년에 제정됐다. 매년 10월 4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도내 전역에 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 에 따라 완주군도 건전한 헌혈문화 조성과 생명나눔 확산에 동참하고자 이번 캠페인 을 마련했다.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 액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주군청사 앞 민 원인 주차장에서 열린다.

건강한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며, 헌혈 참여자에게는 혈액형·간염·간기 능검사 등 건강체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봉 사활동 4시간 인정, 헌혈증서 및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전주 상생 1차사업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첫 삽

193억 투입 폐정수장·부지 탈바꿈 1.7km산책로·수영장 등 단계 조성

완주군이 지난 17일 완주·전주 상생 1차 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관저수 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역 상생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 렸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도의원·군의 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상 생사업의 첫 삽을 함께 떴다.

상관저수지와 정수장은 과거 전주시 군비 59억 원) 투입해 추진된다.

의 상수원으로 활용된 중요한 수자원 이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 상수 관저수지 둘레 약 1.7km에 산책로를 원 기능이 중단되면서 전주시의 폐쇄 관리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도·전주시와 함께 상생협력 1차 사업 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사업 대상지로 발굴하면서,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이날 착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생명력을 갖춘 지역의 힐링 거점으로 대를 자연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힐 되살아나게 됐다.

193억 원(도비 76억 원, 시비 58억 원, 범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조성하고, 정수장 부지(4만9,390㎡)에 는 야외무대, 어린이 놀이터, 야외 수영 그러나 2022년 11월 완주군이 전북 장, 힐링캠핑장, 숲속산책로 등 자연친 화형 여가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상관저수지 일 링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완주와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모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드론제전서 국제드론레이싱연맹 발대

세계6대리그협력체계본격가동 내년국제연맹사단법인설립목표

남원시는 지난 16일 2025년 남원국 제드론제 행사장인 남원종합스포츠타 운 컨퍼런스장에서 세계 드론레이싱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국제 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토교 통부 관계자, 드론레이싱 해외리그 대 표 등 각계각층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드론레이싱 리그 대표들이 향후 연맹체계를 구축 하여 드론레이싱이 전세계인이 즐기는 리로 1부에서는 드론레저스포츠 활성 레이싱 연맹 출범식으로 진행됐다.

선대표를 비롯한 해외 드론레이싱 관 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을 선언했다. 계자들이 모여 DFL 국제드론레이싱 바탕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황 및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지난 7월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16일 국제드론제전행사서 국제드론레이신 연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2027 DFL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 미래스포츠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자 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2부에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 화 국제컨퍼런스, 2부에서는 국제 드론 계자 및 드론레이싱 관련기업들이 참 레이싱연맹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석한 가운데 유럽 DCL, 미국CPR, 한국 1부 국제컴퍼런스에서 DFL코퍼레이 DFL등 6개 드론레이싱 리그들간 국제 표준안 마련,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지난 5월 1일 드론레이싱의 글로벌 할로 남원시가 글로벌 드론스포츠를 연맹 관련 다양한 의견 교류와 협력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레이싱의

<사진=남원시> 8일에는 글로벌 드론레이싱 연맹 창설

또한, 남원시는 2026년 6월 국제드론 준비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 규정 의 얼라이언스 업무 협약 수립 등의 역 선도하는 종주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질병관 던지기(감염병 바로 알기) 등 다양한 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에

남원시보건소, 드론제전서 감염병 예방 체험부스 운영

행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실천 율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2025 병, 모기 퇴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년 지역 축제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 방 행태 홍보부스 지원 사업' 대상으 달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를 운영했다.

세균 확인) △퍼즐 맞추기(감염병 예 방 행태 인식 개선) △OX퀴즈와 다트 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 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 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험형 부스 는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한 체험 동시에 올바른 손 씻기 이번 부스는 남원시가 감염병 예방 와 기침 예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 핵, C형 간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 유용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함께 전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운영 내용으로는 스뷰박스 체험(손 사회와 협력해 참여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진안관광 인사이트 아카데미' 개최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안 산약초타운 2층 세미 나실에서 마이아카데미 1기 '진안관광 인 사이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진안의 자연·문화·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관광콘 텐츠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 대상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전형 관광 기획 입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신 청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진안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관광 트렌드 분석 과 전략 수립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내 관 광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관광산업 전반 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이번 아카데미 를 통해 관광산업의 다양한 트렌드와 아이 디어를 진안의 관광 발전에 접목하고 지역 민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

자세한 사항은 (사)진안군관광협의회 (063-433-7338)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사과향 가득한 무주군 무풍면, 제36회 무풍면민의 날성료

제36회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 행사가 지 난 17일 무주군 무풍면생활체육공원 일원 에서 개최됐다.

무풍면이 주최하고 무풍면 체육회가 주 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 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윤 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주민, 부산 등 자매 결연도시민, 서울과 대전 향우회 회원 등 2 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무풍면민의 장 '애향장'은 재경 무풍 면민회 하남수 사무국장이 남다른 애향심 으로 면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생활개선회 송현옥 회장이 '봉 사장'을 받았다.

무풍면 서종열 면장은 "사과의 고장 무풍 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 무 주의 자랑이라는 점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무풍이 지속 가 능한 농업과 태권도 교육 특화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든든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 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정신건강의 날'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장수시장 일원에서 군민의 정신 건강 인식 제고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 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7 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 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 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 바로 알기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24시간 위기상담전화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24시간 위기 상담전화(1577-0199) 또는 장수군 정신건 강복지센터(063-350-280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도 재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프로 그램과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우울증 예 방교육 등 주민 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 선정

총사업비 15억 투입 장수한누리전당 재정비

관한 '2026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 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기금 10 여억 원의 특별지원기금을 확보했다고 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밝혔다.

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제 도로 심사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종합평 가를 거쳐 우수성이 검증된 사업만 선 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장수한누리전당 복합 문화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체 응모 사업 19개 사업 가운데 장수군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장수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 화사업'은 2026년도에 기금 10억5000 장수군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 만을 포함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해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 냉난방시 스템 교체, 수처리·전기·통신 설비 개

장수한누리전당은 2007년 개관 이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대청댐 상 18년간 장수군의 대표 문화·체육시설 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과 편의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어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냉난방과 수처리, 전기·통신 설 비 등 주요 인프라가 낡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개 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 장수한누리전당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갖춘 지 역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공모 사업 을 통해서 장수한누리전당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재정비되어 군민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으 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금강수계 특별 지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과 2028년에도 연차별 공모를 통해 사업 비를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선정

IoT·AI 등 디지털 기술 농촌 현장에 보급

진안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 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4,000만원(국비 2억3,800만 원, 군비 1 억200만 원)을 확보했다.

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촌 현장에 보급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

은 지난 2월 '이상기상 대응 시설하우 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 축'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가를 대상으로 내년 중 신청을 받아 최 거뒀다.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 후변화로 인한 시설하우스 내 일사량 감소로 작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온·습도, 조도 등 환경센서와 사물인터넷(IoT)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 기술을 결합해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 로 제어·보광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5,000㎡ 규모이며,

군은 이상기상(저일조)으로 광 환경 조 건이 불리한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 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 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상기상에 대응 하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발굴하여, 지 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재)광영공익재단, 임실군에 장학금 3천만원 전달

허광욱 명예 이사장 4년간총 1억2400만원지원

지난 2015년 재단설립 이래 고향의 후학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 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재)광 영공익재단 설립자 허광욱 명예 이사 장의 뜻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재)광영공익재단(이사장 심상우)이 지난 16일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심 민 임실군수와 장학생, 가족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재)광영공익 재단 2025년도 아동·청소년 장학생 장 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20명에 게 1인당 15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 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경제적 도록 격려했다.

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 순 여사)와 함께 2015년 광영공익재단 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재 을 설립했다. 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 다.

정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의 핍박과 다. 6.25 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학업에 맺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행 했다. 정대학원, 미국 스탠포드대 최고경영자



(재)광영공익재단이 지난 16일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재)광영공익재단 2025년도 아 동·청소년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않았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 여건에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 기까지 4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뜻깊은 곳 심상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에 쓰고자, 6년 전 별세한 아내(故 김영

이후 고향인 임실군의 아동·청소년 했다. 장학생들에게 4년간 89명의 학생에게 임실군 삼계면이 고향인 허광욱 명예 장학금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며 지 이사장은 1936년생으로 소작농의 가 역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 과 후학양성의 큰 뜻을 베풀어 주신 허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허광욱 명예 대한 열정으로 고학의 결실을 힘겹게 이사장의 서한이 낭독되어 감동을 더

허 명예 이사장은 서한을 통해 "어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정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임실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3.8%

서울대 진학의 꿈을 이뤘던 자신의 경 험을 나누며,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 받은 장 학금이 응원의 마음으로 남길 바란다" 며 "이 기회를 공부에 충실히 사용하고, 나중에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

심 민 군수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 히는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고향 사랑 광욱 설립자님과 심상우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복지 실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노력하여 학 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진행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16일 쟁거리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군청 강당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 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

을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2006년 부터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번 축제는 구천동의 수려한 단 지정을 받았으며 해마다 무주반딧 불축제를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안성두문마

을낙화놀이보존회가 선보이는 '낙

화놀이'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큰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

26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무 기회로, 25일(17:30~)에는 무주구 주 구천동 어사길 걷기 탐방 행사 천동 계곡 일대 구) 탐방센터 앞에 가 진행될 예정으로, 코스 내 체험 부스에서는 '도자기 열쇠고리 만들 기'와 '가훈 써주기' 등의 체험도 즐 며 '무드등 만들기'와 '자개 체험' 등 길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가을빛 따라 무주구천동 어사길 걸어 볼까?

오는 25일부터 26일 양일에 걸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

이 전통 체험도 기다린다.

10월25일~26일

회, 상인연합회) 된다.

'무주구천동어사길 걷기행사'

'어사길 걷기와 함께 하는 무주구

천동 가을 축제'가 개최(주최: (사)

무주군관광협의회 주관: 관광연합

풍과 계곡 풍경을 마주하며 다양

한 공연·체험·탐방을 즐길 수 있는

서 노래 "그대 그리고 나"의 주인공

'소리새'가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다.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재 난 상황에 대비해 초기 대응능력과 유 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훈 련이다.

소방서, 진안경찰서, 육군 제7733부 대,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군산도시 여하며, 장비는 40여대가 투입될 예정 다. 이다.

훈련은 지진이 발생하여 다중이용시 설이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 진안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2205 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며, 사고 발 생 후 인명구조 활동, 구조 및 구급, 수 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훈련하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토론훈련(군 청 재난상황실)과 현장훈련(진안홍삼 한방센터)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실시 이번 훈련은 진안군을 비롯해 진안 간 대응 역량을 점검에 중점을 둘 예 정이다.

또한 국민체험단 운영으로 재난 대 가스, KT북전주지사, 자원봉사센터 등 응 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12개 기관 및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 를 높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인 (사)예술 했다. 또한 예술담은나라 단원들이 직 담은나라(지휘 이대정랑, 이하 예술담 접 참여한 피아노 협주곡과 합창 무대, 은나라)의 네 번째 공연인 '노래하는 'Sing, Sing, Sing' 등 익숙한 곡들이 어 장수하늘소'가 지난 15일 장수한누리

장수군, '노래하는 장수하늘소' 공연 성료

전당 소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2022년부터 4년간 이어 나라의 공연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와 온 예술담은나라의 상주단체 활동을

께한 음악 여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노래하는 장수하늘소'라는 제

르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운 레퍼토리로 구성돼 클래식과 대중 밝혔다. 음악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

우러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어냈다.

이대정랑 대표는 "4년동안 예술담은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로 군민과 함 린다"며 "빠른 시일 안에 더 좋은 무대 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그동안 수준 높 목의 신곡을 성악가와 관객이 함께 부 은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 사한 예술담은나라의 노고에 감사드 공연은 색소폰 연주자 손주앙의 감 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미로운 '헤이주드', 베이스바리톤 박순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행복과 웃음 기의 유쾌한 '사랑의 묘약' 등 다채로 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수=최진수 기자

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 환으로, 건강하고 존중·배려가 중심 폭력 예방 인식을 내면화하고 상호 존 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 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 됐으며 폭력예방 교육전문강사인 홍 란다"며, "앞으로도 직급별·상황별 맞 미선 강사가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

교제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 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 영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관리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 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조직 구성원이 춤형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 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10월 31일 신청 접수 마감

임실군은 지난 16일 기준 2차 민생회 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3.8%를 기록했 다고 밝혔다.

대상자 24,599명 중 23,091명의 군민 이 신청하였고, 지급액은 23억에 달한 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10 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별 10만원 이다.

2차 지급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 시 자동 소멸된다. 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에 지급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 억·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고액 자산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지원을 강 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하며, 신용·체크카드, 임실사랑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1·2차 동일하게 11월 30 챙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군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화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기 한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많은 군민 들이 민생 회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실=한병열 기자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감성으로 기록한 수학여행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 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 우고 자존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5 꿈드림 수학여행 - 기대찰칵 서울·완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서울과 완주의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며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예감(예술 감수성)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열린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12명이 참여해 서울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을 체험하는 '기대찰칵 서울' 프로그램이 열렸 다.

참가자들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감성', '여 행 속의 나', 'K-POP'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 미 션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담은 결과물 을 제작했다. 팀별로 K-POP 음악에 맞춘 릴스 영상을 촬영·편집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결과 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LG아트센터 서울로 이동해 뮤지컬 〈맘마미아〉를 관람하며 무대예술의 생동감 과 열정을 직접 느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상관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관내 주민들 위해 100만원 후원

완주군 상관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관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금 100만 원을 상관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최근 열린 전달식에는 상관면 도시 재생주민협의체 박귀원 전 회장, 안산호(이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의 일 원으로 추진된 새원복합어울림센터가 주민들 의 참여와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대 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로 마련됐다.

안산호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 기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협의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앞 으로도 상관면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도, '2025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신청 접수

전북도내 교직원 8명 대상

2025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 체상 추천 접수가 오는 11월 29일 까지 이어진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전북

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가족들의 숨은 스승을 발굴하 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해 지난 '19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 28일까지 38일간 전북자치도 초· 하는 교직원을 조명함으로써, 스 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

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11월 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교육전

기여해 오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을 고 교육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초등학교 교원, 중

문직 및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교육계 및 시민 활동가 30여명 등 원, 대안학교 교직원 중 모범이 되 으로 헌신하는 교직원 발굴에 최 는 8인을 선정해 상패와 함께 소 선을 다한다. 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고 추천서 또는 공적조서, 공 면 된다.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아름다운 교육공동체 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관 하고 전주현대옥과 아마존 완주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학부모와

두재균 위원장(전북대학교 제14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학생·학 대 총장)은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부모·교직원 각 10인 이상, 총 50 헌신하는 교직원들이 마땅히 받아 인 이내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야 할 존경과 격려를 해드리는 것 이 이 상의 취지"라며 "교직원은 적증빙자료 등은 이메일(www. 자부심과 보람을, 학생과 학부모 arumdari@naver.com)로 제출하 는 존중과 신뢰를, 지역사회는 공 동체의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www. arumdari@naver.com) 또는 집행 위원장 이강선, 사무총장 박효정 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정읍 농소동 새마을부녀회 <u>홀몸</u>어르신에 밑반찬 나눔

정읍시 농소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홀몸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직접 식재료를 손질해 맛깔스러운 김치와 불 고기를 만들었다. 정성으로 준비한 밑반찬은 농소동 관내 홀몸어르신 80가구에 직접 전달 했으며, 일부는 내장상동 공유냉장고에 기부 해 더 많은 이웃과 나눔의 정을 함께했다.

현복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 께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 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 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소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김장김치 나눔 행 사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어르신, 2025 실버문화페스티벌 공모전 인기상 수상 이번 공모전에서 부안 어르신들

다듬이난타로 무대 빛내다

부안군 어르신 35명이 지난 9월 28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2025 실 버문화페스티벌' 어르신 문화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본선 무대에서 '인 기상(상금 30만 원)'을 수상했다.

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 주관하여 전국 각지의 노년 세대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선 보이며 예술적 역량을 공유하고 교 류하는 자리다.

은 전북 대표로 참가해 전통 다듬이 장단과 타령을 뮤지컬적 요소로 재 구성한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에 오른 35명의 어르신들은 나쁜 기운(액)을 막아 주고 복을 부 실버문화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 르는 '액막이타령'을 주제로, 힘찬 다듬이소리와 사설로 관객들의 환 호를 이끌어냈다. 완벽한 호흡과 합 을 선보인 단체 퍼포먼스는 관객은 물론 다른 참가팀들로부터도 큰 박 수를 받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숲체험 행사 성료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 일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 들기 △밧줄 놀이터 등 부모와 함 는 전주지역 영유아와 학부모, 보 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신 육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까지 느 가운데 '부모와 함께하는 숲체험' 낄 수 있었다. 행사를 가졌다.

도움을 받아 숲속을 거닐면서 안 좋겠다"고 밝혔다. 전하게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참여한 영유아들은 △알밤

강연자 회장은 "바쁜 일상에서 이번 행사에서 가정어린이집 영 벗어나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하며 유아들은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유대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혜민 기자



장수군4-H연합회, '일일주막' 자선기금모금행사

식)는 지난 16일 한누리전당 다목 고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많 적체육관에서 '일일주막' 자선기 은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금모금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일일주막'은 2014년부터 매년 온기를 더했다. 이어온 4-H연합회의 나눔 행사

올해 행사는 장수한누리전당 다

장수군 4-H연합회(회장 문광 목적체육관에서 '일일주막'을 열 속에 진행돼 지역사회에 훈훈한

문광식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로,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 돕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고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 아산 청소년들에 광한루원 해설 진행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남원시청소 년문의집(관장 서대현)은 지난 16일, 남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광한루원에서 '청소년광힌 루원해설사'가 1박2일 남원을 방문한 아산시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는 남원시청소년문 화의집 소속 청소년들이 광한루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또래 방문객들에게 쉽고 흥미 롭게 전달하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해설 활동 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들 이 남원을 방문한 아산시 청소년들에게 눈높 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역사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해설 내용 을 바탕으로 한 퀴즈 풀이와 선물 증정 이벤 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남원=정하복 기자

개원이실천 할수있는 많소중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픞라스틱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종이영수증대신 휴대폰으오 전송되는 전자 영수증 받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종이컵대신 게인 텀블러사용하기



올바른분리배출, 자원 순환율이 높은 투명 페트병분리배출!

〈一事一言〉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1)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핵무력 고 도화의 핵심축이라며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의 중거리용 화성-16형, 단거리용 화성-11마 형 미사일과 최강의 전략핵무기 체계라며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 돌입비행체(MIRV)를 탑재한 것 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 사일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이 자리엔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 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 고 베트남 또럼 당총비서 등이 참 석해 이를 지켜보았다.

작년 10월 7일 김정은 위원장 은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한국 군을 조롱하며 "변변한 전략무 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비 하하고,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 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발언은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이 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국내 일각 에서는 여전히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년 1월 28일 미국 핵과학자 협회(BAS)가 발표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89초가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7년 첫 발표 이후 인류가 가장 최악 의 재앙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BAS는 재앙의 주요 원인으로 중 국의 핵무기 증강,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 미국의 핵무기 현대 화를 들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 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전술핵탄두는 화 산-31형으로, 10kT(TNT 10,000 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추 정된다. 북한이 이 탄두의 핵능력 을 입증할 제7차 핵실험을 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 가들의 추정 수치일 뿐이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의 폭발력 15kT와 21kT의 2/3 내지는 1/2수준이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 형은 지름 40~50cm으로 추정되 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 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인 KN24, 600mm초대형 방사포 KN25,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 사일 화살2, 무인잠수정 해일, 잠 수함 탄도미사일 미니SLBM 등 과 같은 투발수단에 탑재해 발 사할 수 있다. 이번 당 창건 80주 년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탄 도미사일 화성-16형이나 KN23 계열의 화성-11마형에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는 인류 종말을 앞당기 는 재앙이므로 보유해선 안되며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 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북 한 핵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 는 인류 종말의 위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지 않 을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북 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 반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핵무기의 보유·반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 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 한 대책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안 외에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 결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실현, △'핵 가 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 고 있고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 가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둘 다 지난한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력 재래식무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북한의 화산-31 형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 대응 할 수 있는가? 북핵 대안으로 떠 오른 '고위력의 재래식 무기'는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다. 과연 김정은의 말대로 한국의 군사능 력은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 는 허울"에 불과한가? 현무-5보 다 한 단계 아래인 현무-4의 위 력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

2021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는 "[단독] 현무-4 단 1발로 북 금수산태양궁전 완파 가능"이라 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당 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 렬 이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 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도쿄올림 픽 불참을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풀기 위해 고심하던 때이어 서. 이 기사에서는 북한을 자극하 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읽혔 다.

이 기사는 군 당국자의 말을 인 용해 현무-4 미사일의 위력에 대 해 △집속탄을 장착할 경우 단 1 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의 초토화 가능, △고폭탄 탄두를 장 착할 경우 단 1발로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의 완파 가능, △지하 관 통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100m 이하의 김정은 위원장 벙 커도 무력화 가능 등으로 소개하 고 있다.

당시 한국은 '한미 미사일지 침'(1979)에 따라 미사일의 사거 리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무-4의 위력을 설명하면서도 사거리는 300km라고만 소개되었 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 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만 해 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 요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철폐'를 받아냈다. 그 이후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현무-4를 능가하는 최 신형 현무-5 미사일이 처음 공개 되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전북형 K-푸드 미래

전북자치도가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 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 난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서 열린 'K-FOOD NEXT 포럼'은 전북 이 명실상부하게 AI·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미래 식품산업 거점으로 도약하 겠다는 선언이자 실천의 출발점이었다. 포럼에는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 로벌 식품산업 흐름 속에서 전북형 커스 텀푸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 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 춤형 식품 생산기술, 정부의 푸드테크 육성 방향, 산업 확산 전략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면서, 전북의 식품산업이 단순 한 지역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농식품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긴밀히 협력하 며 식품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끌고 있 다.

여기에 전북도가 추진 중인 'AI·마이 크로바이옴 기반 커스텀푸드 산업벨트' 조성 전략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도는 현재 총 1,875억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정의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민관 협력의 실행력이다. 그동 안 많은 지역 전략산업이 초기에만 화 려하다가 중장기 추진 단계에서 흐지부 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형 커스텀 푸드 산업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 해서는, 행정의 조정역할과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대학의 인재 양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야 한다.

특히 AI와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식생활 전반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 기 술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식 단을 제시하는 AI 커스텀푸드는 고령화 사회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마 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식 품 역시 질병 예방과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분 야는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자원, 발효・ 식품기술,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결합 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전북은 이미 메디컬푸드, 케어푸드, 푸 드테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 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정이 추진 하는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 어푸드 산업벨트' 비전이 차질 없이 실 현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 업의 심장부로 부상할 것이다.

이제 식품산업은 AI·데이터·바이오가 융합되는 첨단 미래산업이다. 전북이 이 흐름의 중심에서 국가 푸드산업의 방향 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도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전통 위에 AI 혁신의 날개를 더해, K-푸 드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 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이 기술과 사람,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진 정한 미래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 오늘의 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갉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시인 약력: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 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 부문 등을 수상했다.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마저 사라진다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



임실이도리미륵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 1993년 8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임실군 봉황10길 109 (임실읍, 운수사)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전주지사 010-9645-4113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 010-5242-3694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환절기 질환, 예방법



꾸준한 운동



풍부한 비타임성 음식섭취



적당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

고창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빛나는 우리'



고창군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노력 을 기울이며 포용적인 지역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를 시작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활성화를 비롯 하여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 구성 추진까지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가는 희망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자 주〉

▲ 따뜻한 공감과 화합의 장, 장애인의 날(4.20.)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감동적 인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활지원센터 주관)은 지금까지 진행된 강 변경해 군민에게 효과적인 장애인식개 선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재활의욕을 향상하기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인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열렸다.

'싸목싸목 걷기' 캠페인은 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고인돌박물관 공원까지 고창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천변길을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걸으며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공유하 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장애 유 장애인식교육(4월2일, 장애인자립생 무를 넘어 모든 참가자가 고창군을 이루 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 의형 교육 방식을 문화·예술 공연으로 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 는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고 창군의 문화로 남도록 공연과 기념행사, 캠페인을 매년 지속해 비장애인과 장애

▲ 맞춤형 돌봄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2025년부터는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 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648명의 아이들 이 신청 대상이 되었으며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언어, 미술심리, 행동발달 등 있다. 이번 개선으로 대상아동에게 적기 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료상담 사업 활성화

장애인 개인의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 여 다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 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활발 히 진행중에 있다.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동료상담가로 나서 같은 어려움을 장애인의 날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상향 공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활성화

겪는 이들을 상담하며 상담참여자를 돕 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상 담참여자였던 장애인이 상담가가 되거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나 자립하여 일자리를 찾는 등 사회참여 및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 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전망이다.

로 디지털 스포츠 활력 UP!

오는 11월부터는 고창군에서 장애인 ▲ 같은 경험, 깊은 공감 중증장애인 이 보다 쉽고 즐겁게 스포츠를 경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 실이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 문을 열 예 정이다. 양궁부터 축구, 다양한 구기종목 등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여러 스포츠 종목들을 가상현실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

장애인 일자리 확대

▲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실 개설 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꾸 다. 준히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 한 노력이 더욱 빛을 내면서 올해 장애 인 일자리에만 11억원의 예산 확보로 총 70여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과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었다. 행정도 우미, 환경정화업무, 문화예술활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당당히 일하며 사회 구성 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 장애에 무관하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내일을 만드는 고창군

고창군은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맞춤 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 인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한다. 돌봄사각 지대였던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확립으로 장애인과 그 가 ▲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동행, 쪽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는 체육관인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복 를 확대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 지관 등이 있는 고창읍 율계리 사회복지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 시설지구 내에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

>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애인의 달 행사 부터 디지털 스포츠까지, 고창군은 장애 인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 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 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고창=백종규 기자

